



부모님께

첫째 한나가 6살이고 둘째 필립이 4살, 그리고 막내 로라가 아직 아내 제니의 뱃속에 있을 때, 저와 아내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가하였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지는 미국에서 상당히 먼 중국 북서부 지방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둘 다 타국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무서운 질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러한 두려움, 혹은 걱정들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계획이 잘 되어가는 것에 즐거워했고 우리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꽤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2년 여름에는 아이들이 좀더 커서 한나가 12살, 필립이 9살, 그리고 로라가 5살이었을 때, 대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이집트 카이로 프로젝트에 다시 참가하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역시도 자제분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터발시티는 대학생들이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전하는 일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 194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은 서로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글로벌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현상이 되어왔습니다. 인터발시티는 1970년 코스타리카에서의 첫 프로젝트 이후, 대학생들에게 그들 나라 밖에서의 봉사과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국제 프로젝트가 인터발시티에 의해 후원되

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자제분을 그들 자신의 믿음 여정에 받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돋아 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제분이 그저 쉽지만 한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여러분은 자식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애로 채워진 인생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해외로 나간 여러분의 자제분에 대한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드님이나 따님이 글로벌 프로젝트에 들어온다면, 저는 이 것이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자신합니다.

여러분의 자제분이 참여하게 될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언제, 어디서, 사역 내용, 비용-은 이 링크에 있는 도표를 통해서, 혹은 프로젝트 담당자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콧 베스넥커, 이사

인터발시티 글로벌 프로젝트 팀